

One of the early indications of the Christmas season is the appearance of lights, lights on all sorts of Christmas displays in streets, in shopping centres and shops, lights on Christmas trees. The Christmas lights displayed in the homes and gardens of many people in Melbourne – such as in The Boulevard in Ivanhoe – bring much delight to children and adults in our city. But the lights are not just decorative – they are also symbolic.

크리스마스 시즌을 알리는 이른 조짐 중의 하나는 등의 등장으로, 거리와 쇼핑센터, 상점들에서 보이는 모든 종류의 크리스마스 장식용 등과 크리스마스 트리의 등의 등장입니다. 아이반호 지역의 The Boulevard 거리의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멜번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집과 정원에 장식된 크리스마스 등은 이 도시의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은 그저 장식용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상징적입니다.

Christmas contains many spiritual truths, but it will be hard to grasp the others unless we grasp this one first. That truth is that the world is a dark place, and we will never find our way or see reality unless Jesus is our Light. The apostle John says this about Jesus in the Prologue to his gospel: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 man was coming into the world.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John 1:9-10).

크리스마스는 많은 영적인 진리를 내포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잘 이해하지 않는 한, 다른 사안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진리는 세상은 암흑의 장소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또는 현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서두에서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요 1:9-10).

How is the world “dark”? In the Bible the word “darkness” refers to both evil and ignorance. It means first that the world is filled with evil and untold suffering. Look at what was happening at the time of the birth of Jesus – violence, injustice, abuse of power, homelessness, refugees fleeing opposition, families ripped apart. Sounds exactly like today, doesn’t it?

어떻게 세상이 “어두울까요”? 성경에서 “흑암”이라는 단어는 악과 무지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먼저, 이 세상은 악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일어났던 일을 살펴봅시다 – 폭력, 불의, 권력의 남용, 노숙문제, 반대를 피해 달아나는 피난민들, 산산 조각난 가정들. 오늘날의 모습과 꼭 같지 않습니까?

The other way our world is “in the dark” is that no one knows enough to cure the evil and suffering in it. Isaiah 9:2, “The people walking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is a famous Christian text, enshrined in Handel’s “Messiah” as one of the prophecies of the birth of Jesus. It is the end of Isaiah 8, however, that explains why we need the light from God. In verses 19-20 we see people consulting mediums and magicians instead of God. Then the chapter ends, “Distressed and hungry, they will roam through the land..... They will look toward the earth and see only distress and darkness and fearful gloom..... (verses 21-22).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세상이 “암흑 속에 있다” 라는 것은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 장 2 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는 유명한 성경 구절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중의 하나로, 헨델의 “메시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터의 빛이 필요한지는 이사야서 8 장의 마지막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9-20 절에,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은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암흑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21-22 절)로 끝을 맺습니다.

What is going on here? They are “looking toward the earth” and to human resources to fix the world. They are looking to their experts, to the mystics, to the scholars, for solutions. They admit they are in darkness, but they claim they can overcome it themselves. People make the same claim today. Some look more to

the state, to government, some more to the market, and everyone these days looks to technology. But they share the identical assumption, namely that things are dark but we believe we can end that darkness with intellect and innovation.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땅을 굽어보고”,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 인간적인 방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와 신비주의자, 학자들에게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암흑속에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이를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국가와 정부에 더욱 기대를 걸고, 다른 이들은 시장에 더욱 기대를 걸며,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기술력에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 상황이 암울하지만, 지적 능력과 혁신으로 우리가 이러한 암흑을 끝낼 수 있음을 믿는 동일한 가정을 공유합니다.

There are those who believe that we have the light within us, and so we are the ones who can dispel the darkness of the world. We can overcome poverty, injustice, violence and evil. If we work together, we can create a “world of unity and peace”. But can we? Actually it is the opposite! Humanity cannot save itself. In fact, the belief that we can save ourselves – that some political system or ideology can fix human problems – has only led to more darkness. For example, science unguided by moral principles gave us the Holocaust. It confirms what we see in Isaiah 8, that if we look only to the earth and human resources, the darkness only gets worse.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빛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자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 불의, 폭력과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협력한다면, 우리는 “화합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사실 이와 반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은 – 일부 정치적 체계 또는 이념이 인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더 많은 암흑을 야기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 신념이 수반되지 않은 과학은 우리에게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8 장에서 말하는, 만일 우리가 오로지 땅과 인간적인 방책만을 기대한다면, 암흑은 그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Christmas, therefore, is the most unsentimental, realistic way of looking at life. It does not say “Cheer up! If we all pull together we can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he Bible never counsels indifference to the forces of darkness, only resistance, but it supports no illusions that we can defeat them ourselves. The message of Christianity is, instead, “Things really are this bad, and we can’t heal or save ourselves. Things really are this dark – nevertheless, there is hope”. The Christmas message is that “on those living in the land of deep darkness (the shadow of death) a light has dawned” (Isaiah 9:2). Notice that it doesn’t say from the world a light has sprung, but upon the world a light has dawned. It has come from outside. There is light outside of this world, and Jesus has brought that light to save us. Indeed, he is the Light (John 8:12).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삶을 바라보는 가장 비감상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힘내세요! 우리 모두가 협력한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암흑의 영향력에 대해 모른채 하고, 이에 대항하기를 충고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에 대항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뒷받침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기독교에서는 “사태가 아주 나쁘며,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하거나 구할 수 없습니다. 아주 암울한 지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라고 전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전하는 바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사 9:2)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빛이 나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외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 밖에 빛이 있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참으로, 그가 세상의 빛이십니다(요 8:12).

When Isaiah speaks of God’s light “dawning” on a dark world, he is using the sun as a symbol. Sunlight brings life, truth and beauty. The sun gives us life. If the sun went out, we would freeze. The sun is the source of all life. So too the Bible says that only in God do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Acts 17:28). We exist only because he is upholding us, keeping us together every moment. According to the Bible, we have lost the original, full, right relationship with God that our first parents, Adam and Eve had at

the beginning (Genesis 3:1-24). That is the reason we will eventually know physical death, and it is why we experience spiritual death now – loss of meaning and hope, addictive, excessive desires, deep discontent, shame and struggles with identity, and an inability to change.

이사야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그는 태양을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햇빛은 삶, 진실 그리고 아름다움을 가져다 줍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삶을 제공합니다. 만일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태양은 모든 삶은 근원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행 17:28)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의 첫번째 부모인 아담과 이브가 맨 처음에 가졌던 본래의, 완전하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창 3:1-24). 결국 이로 인해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알게 되고, 의미와 희망의 상실, 중독적이고 지나친 욕망, 깊은 불만, 수치심과 정체성에 대한 고심, 변화를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The sun shows us the truth. If you drive a car at night without your headlights on, you will probably crash. Why? Because light reveals the truth of things, how they really are. So too the Bible says that God is the source of all truth (1 John 1:5-6). At one level, the only reason you can know anything is because of God. God made your mind and your cognitive faculties. At another level, we can't possibly know who God is unless he reveals it to us, which he does in the Bible. And in truly understanding who he is, you come to understand who you are, his creation.

태양은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밤 운전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사고를 낼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빛이 사물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고, 실제로 어떠한 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시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요일 1:5-6).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인지 능력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성경에서 하신 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는 한,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 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 신지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그의 창조물인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The sun is beautiful. Light is dazzling and gives joy. That is true literally. In places where there are only a few hours of daylight at certain times of the year, many suffer from depression. We need light for joy. God is the source of all beauty and joy. Augustine, the great church father, famously said, “Our hearts are restless until they find their rest in God”. Augustine believed that even when you seem to be enjoying something else, God is the actual source of your joy. All joy is really found in God, and anything you do enjoy is derivative, because what you are really looking for is him, whether you know it or not.

태양은 아름답습니다. 빛은 눈부시며 기쁨을 줍니다. 말 그대로 이는 사실입니다. 일년 중 일정 시기에만 단 몇 시간의 햇빛이 비추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위한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과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이 다른 무언가를 즐기는 듯 할 때조차도, 여러분의 실질적인 기쁨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기쁨은 실제로 하나님 안에 있으며, 여러분이 즐기는 모든 것은 파생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여러분께서 진실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God alone, then, has the life, truth, and joy that we lack and cannot generate ourselves. How can this divine light “dawn” upon us? Well, verses 6 and 7 of Isaiah 9 answer that question with stunning directness. The text tells us that the light has come “for to us a child is born”. This child brings the light, because he is “Wonderful Counsel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It is remarkable that the four titles applied to this child belong to God alone. He is the Mighty God. He is the Everlasting Father, which means that he is the Creator, and yet he is born. There is nothing like this claim in any of the other major religions. He is a human being. However, at the same time he is God!

생명, 진리와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부족하며, 우리 스스로는 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신성한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을까요”? 이사야서 9 장의 6 절과 7 절은 이 질문에 대한 깜짝 놀랄 명쾌한 답을 줍니다. 이 구절은 이 빛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남”으로서 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놀라우신 조연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빛을 가져다 줍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네 가지의 칭호가 이 아이에게 쓰여졌음은 주목할 만 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즉 그는 창조주 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다른 주요 종교 어디에도 이와 같은 주장이 없습니다. 그는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This is what we celebrate at Christmas. We stare dumbstruck, lost in wonder, love and praise.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God being born into our world? Well, first of all, if Jesus Christ is really Mighty God and Everlasting Father, you can't just like him. In the Bible the people who actually saw and heard Jesus never reacted indifferently or even mildly. Once they realized what he was claiming about himself, either they were scared of him or furious with him or they knelt down before him and worshipped him. But nobody simply liked him. If the baby born at Christmas is the Mighty God, then he is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and you just serve him completely. Second, if Jesus is Wonderful Counsellor and Prince of Peace, you should want to serve him. Why is he called a "Counsellor"? When you are going through something very difficult, it is good to talk to someone who has walked the same path, who knows personally what you have been going through. If God has really been born in a manger, then we have something that no other religion even claims to have – namely a God who truly understands you, from the inside of your experience. There's no other religion that says that God has suffered, that he knows what it is like to be abandoned by friends, to be crushed by injustice, to be tortured and die. A God who, when you talk to him, understands.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서 말도 못한채 응시하고, 넋을 잃고 감탄하며, 사랑하고 칭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먼저,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그저 그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들은 사람들은 결코 무관심한 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일단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 주장하는 바를 알게 되면, 그들은 그를 무서워하거나, 그에 대해 격분하거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를 좋아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일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왕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여러분은 그를 전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둘째로, 만일 예수님이 놀라운 조연자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라면, 여러분은 그를 섬기기를 원해야 합니다. 왜 그가 “조연자”라고 불리울까요? 여러분이 매우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 같은 경험을 해 본,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아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렇다면 다른 종교는 갖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조차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이는 여러분이 겪는 일의 내막에서부터 여러분을 진실로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난 받으셨다고 말하는, 친구에게 버림받는 것이, 불의에 짓밟히고, 고문당하고,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이야기 할 때, 이해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Isaiah calls him Wonderful Counsellor, which means that he is beautiful. And perhaps now we get a glimpse of why he is. He had the infinite greatness of being the Mighty God, yet he became one of us, immersed in our condition, in order of know our darkness. He saved us by going to the cross, and he did it all voluntarily, freely, out of sheer love. That is beautiful. When we find something to be beautiful, not just a duty, we dwell on it and marvel at it. And so the reason we should obey him, not simply because we have to but also because we want to, is that, in light of all he is and has done for us, he is wonderful. 이사야는 그를 놀라우신 조연자라 칭합니다. 이는 그가 훌륭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는 왜 그러한지를 어렵듯이 알게 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무한한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어둠을 알기 위해, 그는 우리의 상황에 처해, 우리 중의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로 향함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온전히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발견할

때, 단지 의무가 아니라,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감탄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그래야 하기 때문 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며, 그의 존재와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그는 경이롭기 때문입니다.

In short, Jesus is the divine Light of the world, because he brings a new life to replace our spiritual deadness, because he shows us the truth that heals our spiritual blindness, and because he is the beauty that breaks our addictions to things such as money, sex and power. As Wonderful Counsellor he walks with us even into and through the shadow of death (Matthew 4:16), where no other companion can go. He is a Light for us when all other lights go out.

요약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신성한 빛이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대신할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실명을 치료하는 진리를 보여 주셨기 때문이며, 그는 돈과 성 그리고 권력과 같은 것에 대한 우리의 중독을 깨뜨리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우신 조연자로서 그는 심지어 다른 동반자들은 갈 수 없는, 사망의 그늘 안으로 또 이를 지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마 4:16). 모든 다른 빛이 꺼질 때, 그는 우리를 위한 빛입니다.

How, though, can this light become ours? Notice it doesn't just say "For to us a child is born". It also says, "to us a son is given". It's a gift. It can be yours only if you are willing to receive it as a gift of grace. Verse 5 hints at this too. It speaks of a great battle, but it says, "Every warrior's boot used in battle and every garment rolled in blood will be destined for burning, will be fuel for the fire". This imagery means that the great victory over evil will not require our strength. We won't need a warrior's boot or armour or a sword. Burn them up. Someone else will do your fighting for you. Who? Isaiah doesn't tell us here. You have to wait until you get to the "Servant Songs" of Isaiah 42-55 where the prophet points to a mysterious deliverer who is to come. We are told tha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Isaiah 53:5). When Jesus went to the cross, he paid the penalty for our sin. When we trust in Christ's work on our behalf, rather than in our own moral efforts, God forgives and accepts us and implants his Holy Spirit in us to renew us from the inside out. This great salvation, this light that dawns upon you with all its new life, truth and beauty, comes as a gift. The only way you can receive it is to admit that it is an undeserved grace. 하지만, 어떻게 이 빛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라고 말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또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말합니다. 이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선물로서 이를 기꺼이 받을 경우에만, 이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5 절 또한 힌트를 줍니다. 이는 큰 전쟁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묻은 겹옷이 불에 썩 같이 살라지리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형상화는 악에 대한 위대한 승리는 우리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군인들의 신, 겹옷 또는 칼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불 태우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다른 누군가가 대신 싸울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이사야는 이에 대해 여기에서 우리에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신비한 인도자에 대한 선지자의 시사를 다룬, 이사야서 42-55 장의 "종의 노래"를 보기 전까지 여러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을 때, 그는 우리의 죄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도의적인 노력 대신,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내면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심으십니다. 이 위대한 구원, 이 모든 새 생명, 진리, 아름다움과 함께 여러분께 비추어진 이 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영광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Christmas is about receiving presents, but consider how challenging it is to receive certain kinds of gifts. Some gifts by their very nature make you swallow your pride. Imagine opening a present on Christmas morning from a friend – and it's a dieting book. Perhaps on an occasion in the past you had a friend who figured out you were in financial trouble and came to you and offered quite a lot of money to get you out of your predicament. If that has ever happened to you, you probably found that to receive the gift meant

swallowing your pride. Some gifts are hard to receive because to do so is to admit you have flaws and weaknesses and you need help. There has never been a gift offered that makes you swallow your pride to the depths that the gift of Jesus Christ requires us to do. Christmas means that we are so lost, so unable to save ourselves, that nothing less than the death of the Son of God himself could save us. It means that you and I are not capable of pulling ourselves together and living moral and good lives.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는 때이지만, 특정한 종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시험이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본질상, 일부 선물들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리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을 개봉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 그리고 이 선물은 다이어트 책입니다. 어쩌면 과거에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를 안 친구가 여러분께 그러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꽤 많은 양의 금전적인 도움을 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아마도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구겨야 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일부 선물들은 이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 흠이 있고, 나약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우리가 하기를 요구하는 정도까지,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리도록 한 선물은 결코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너무나 길을 잃었고, 우리 스스로를 구할 수 없기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의 죽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도의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To accept the Christmas gift you have to admit that you are a sinner. That you need to be saved by grace. That you need to give up control of your life. If we are honest that is descending lower than any of us really wants to go. Yet Jesus Christ's greatness is seen in how far down he came to love us. He descended into greatness, and the Bible says that it's only through repentance and faith that you come into his light.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로 구원 받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통제를 포기함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는 정말로 낮아지기 원하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낮은 곳에서 왔는 지에 보여줍니다. 그는 위엄에 서서히 빠져 들었으며, 성경은 이는 오로지 여러분이 그의 빛에 이르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darkness fell over the land (Matthew 27:45). The Light of the world descended into darkness in order to bring us into God's beautiful, wonderful light (1 Peter 2:9). The promises of Christmas cannot be discerned unless you first admit you can't save yourself, or even know yourself, without the light of his unmerited grace in your life.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암흑이 땅을 뒤덮었습니다(마 24:45).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답고, 경이로운 빛으로 이끌기 위해, 세상의 빛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었습니다(벧전 2:9).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심지어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여러분 삶 속의 그의 과분한 영광의 빛 없이는, 크리스마스의 약속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